



교육의원 폐지 특별법 찬반 공방 격화

교육의원들 “교육자치 보장한 특별법 부정하는 것”
시민단체 “타지역 이미 폐지... 기득권 내려 놓아야”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폐지법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됐으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교육자치를 전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제주선거구획정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지만 국회에선 어떤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비롯해 ▷제주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도민 공론화를 열

6월 지방선거에 시작할 것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육의원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앞장설 것 ▷이번 사태에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폐지든 존치든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교육의원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해에는 눈을 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며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와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물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실패한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상민·김도영기자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제도 폐지 반대 회견을 갖고있다.

이상국기자

박찬식 “제주4·3평화국제공항 추진”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사진) 제주가지 공동대표는 현 제주국제공항을 첨단 신공항으로 개조한 ‘제주4·3평화국제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공약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가 되면 더 이상의 논란을 접고 대안으로 제주공항을 첨단 신공항으로 개조한 ‘제주4·3평화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며 제2공항 대

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제주공항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구조를 그대로 둔 채 땀질식 확장만 해 와 관광객 폭증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제주공항 이용객 대다수는 관광객이고 대규모 면세점이 있지만 여객 터미널 면적은 일반 국내선 기준인 1인당 9.4㎡에 불과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제주공항의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 관제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회 정개특위, 오는 19일 비공개 간담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안건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사일정을 가같이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 농어촌 특례,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논

의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는 제주도의원을 3명(지역구 2명, 비례 1명) 증원하는 법안과 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한 법안, 그리고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을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의원 증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개특위에 상정됐고,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지난주 상정됐으나 아직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부미현기자

문인로에서

코로나19 유감, FTA 유감

핸드폰 문자로 전해지는 확진자수에 덩달아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음을 인지할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적응력이란 것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들을 잊고 지내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최근 우리나라가 한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걱정이 앞서게 된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시대의 백신문제 등 전 세계

CPTPP 합류 움직임에 걱정결코 환영할 수 만은 없는 일 피해 진단·근본 대책 세워야

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계화’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이면에 생계 걱정을 하게 되는 우리 농민들이 있기에 결코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원래 국가 간의 협약은 국외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협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피해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국회의 기준을 받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15개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관세철폐와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77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하겠다.

즉,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곡류 가공품, 일본의 망고와 레몬 등의 과일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수입 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과수



성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원

생산에서 고작 77억원 규모의 피해만 예상한 것이다. 특히, 수입피해를 분석하면서 아열대과수를 제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의 환경변화 속에 제주 농업인들의 선택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열대과수에 대한 지원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지한 바가 있는 만큼, 기회상실의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산정으로 인해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책도 기존의 사업을 되풀이 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과 2004년 FTA가 시작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출입 환경에 의해 제주 농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FTA 기금사업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FTA의 추진에도 우리 농민들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이 그래서 더욱 아쉽다.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 과잉생산이 자주 반복되고,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지금이라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매매

제주시 용담이동(제주공항 초인접)

왕복 8차선도로 인접, 주차 119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지목 : 대)

■ 토지면적 : 9,715㎡

■ 부속건물 : 연면적 8,184㎡

[3개층 4,732㎡ : 운동시설
2개층 3,452㎡ : 문화및집합시설]

■ 매 매 가 : 280억

문의·상담 010-9972-0736

기린공인중개사 대표 지상윤
등록번호 : 41287-2019-0013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종로 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 리모델링

辛一(辛) 祚(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탐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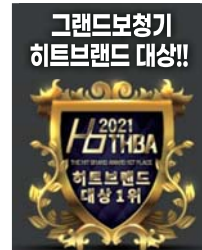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설날맞이모두마드리 행사!!

1/14~2/30일까지 선착순 보청기 주문고객
20만원 상당 천호식품 산삼배양근 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초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거리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리사거리

그랜드보청기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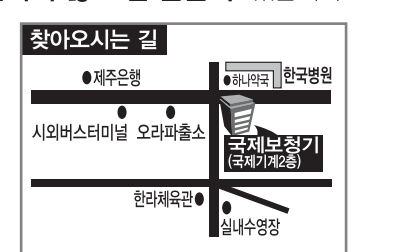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